

반려동물 사료도 '국가 기준'으로 관리한다

- 농촌진흥청 개발 '반려동물 영양표준', 고시 반영으로 정책화
- '완전사료 표시' 제도 도입...2028년 본격 시행 예정
- 소비자 사료 선택 기준 명확해져...반려동물 사료 산업 신뢰도·경쟁력 강화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 국립축산과학원이 개발한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이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고시에 반영됨에 따라, 반려동물 사료(펫푸드) 관리 체계가 한층 명확해졌다.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은 반려동물의 생애 주기별 필수 영양소 권장량과 에너지 요구량을 국내 환경에 맞춰 체계적으로 제시한 지침이다.

국립축산과학원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수행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 영양표준을 마련했다. 이는 국내 반려동물 사료의 영양학적 적정성을 판단하는 과학적인 근거를 세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반려동물 완전사료 표시제'를 도입하는 핵심 기준으로 활용돼, 반려동물 완전사료에 대한 제도적 기준을 명료하게 정립하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성장 단계별 영양 기준을 충족한 사료에 '반려동물 완전사료'를 표시할 수 있도록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고시*를 2025년 9월 개정·공포했다. 해당 제도는 산업계 준비 기간을 고려해 2025년부터

3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202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 「사료관리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별표 15의2] 신설

앞으로 반려인은 사료 포장에 적힌 '완전사료' 표시를 보고 해당 제품이 반려동물의 최소 영양소 권장량을 충족하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완전사료' 표시가 있는 제품은 단독 급여만으로도 필요한 영양을 충분히 채울 수 있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이번 반려동물 영양표준 마련으로 국내에서는 명확한 제도적 기준이 없어 사료 선택에 어려움을 겪은 소비자의 사료 선택 기준이 더욱 분명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해외에서는 미국사료관리협회(AAFCO), 유럽펫푸드산업협회(FEDIAF)를 통해 반려동물 필수 영양소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국립축산과학원은 반려인들이 과학적인 기준에 따라 영양학적으로 균형 잡힌 사료를 설계할 수 있도록 '반려동물 집밥 만들기'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농업기술포털 '농사로' 누리집(www.nongsaro.go.kr/petfood)에 접속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동물복지과 이휘철 과장은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이 정책으로 확장되면서 국내 반려동물 사료(펫푸드) 산업의 기준이 한층 명확해졌다."라며 "앞으로도 과학적인 연구와 제도적 기반을 통해 반려동물 사료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 주요 내용

담당 부서	국립축산과학원 동물복지과	책임자	과 장	이휘철 (063-238-7300)
		담당자	연구사	천주란 (063-238-7321)
	농촌진흥청에서 연구·개발한 농업의 모든 것  농사로			

붙임 1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 주요 내용

□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 구성

- 사료 영양표준은 ① 서론(목적 및 범위), ② 영양소와 에너지, ③ 사료 내 영양소 분석 매뉴얼, ④ 사료 대사에너지 산출, ⑤ *In-vivo* 시험 대체 방법, ⑥ 향후 연구방향 ⑦ 부록 ⑧ 참고문헌으로 구성

□ 영양소와 에너지

- 영양소별 권장량에 대한 연구결과 등을 정리한 **영양학적 지식** 제공
 - 대사에너지 개념을 중심으로 **에너지 요구량(유지, 활동량, 성장·번식)** 제시
 - 에너지 요구량은 사료 건물 및 영양소 섭취에 영향을 미치므로 필수 영양소 함량은 사료 에너지 밀도를 고려하여 조정 필요
 - **완전 사료**의 정의 및 **권장 영양소 함량** 제시
 - 개와 고양이 완전 사료의 권장 영양소 함량은 ‘단위/건물 100g’과 ‘단위/1,000kcal 대사에너지’로 표시
- * 권장 영양소 기준: (개) 성견 38종, 성장/번식기 40종, (고양이) 성묘 41종, 성장/번식기 43종**

□ 사료 대사에너지 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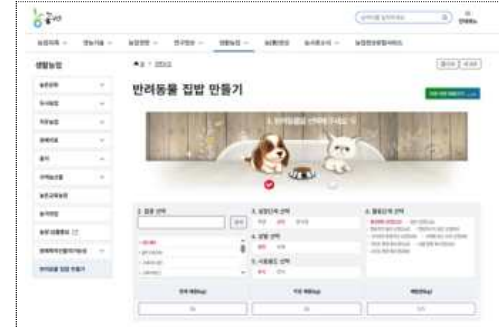
- 사료의 대사에너지 및 영양소 소화율 측정을 위한 시험방법 제시
 - * 대사에너지: 동물이 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로서 사료 에너지의 양을 나타냄
 - (지시제1법) 시험 동물, 사료 급여 기간, 시험 사료(지시제 첨가), 급여량, 시료, 분석 등 프로토콜과 대사에너지 계산법 제공
 - (전분채취법) 사료에 지시제를 첨가하지 않고 전분을 채취하여 대사에너지를 계산하는 방법 제시

□ 동물시험 대체 방법 (*In vitro* 시험법)

- 동물을 이용한 소화율 시험을 대체하기 위한 소화율 예측법 제시
 - 체외 소화율 측정을 위해 반려동물의 위 소화 과정과 소장 소화 과정을 시뮬레이션하는 방법

1) 지시제: 소화율을 간접적으로 측정하고자 사료 내에 일정량을 혼합하는 물질로서 산화크롬(chromic oxide)이 대표적이다. 동물에게 급여한 후, 분변으로 나온 지시제의 양을 구하여 간접적으로 사료의 소화율을 측정한다.

붙임 2 반려동물 집밥만들기 프로그램 이용 방법

	① 농사로 검색 후 누리집 접속 (www.nongsaro.go.kr)
	② 농사로 상단 ‘생활농업’ 메뉴 선택 ③ 왼쪽 하단의 ‘반려동물 집밥 만들기’ 선택
	④ 1부터 6번까지 해당사항 선택
	⑤ 사료 원료 선택 후 배합비 계산